

국가별 맞춤 수출전략 등 'aT, 농식품한류 전진기지'로

혁신도시 10년

③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통적인 수출시장 美·中·日 넘어
신남방정책 연계 '아세안 시장' 확대
대만·폴란드·브라질 등에 요원 파견
태국 등 13개국 18곳에 'K-프레시존'
올수출 62억 달러... 전년비 4.5% ↑
선도기업 육성... 신규수출 64건 달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올해 국
산 농식품 수요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수출진흥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
을 넘어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진흥을 위해 ▲안정적 수출
을 위한 시장다변화 ▲신선 및 국산원료 중심
의 수출지원 ▲특성에 맞는 국가별 맞춤형 마
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월 aT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농수산
식품 수출 현황은 61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
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aT는 안정적 농식
품 수출여건 조성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을 올해 진행했다.

먼저, 시장개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선정했다. 대만, 폴란드, 브
라질 등 최우선 전략 국가에 시장조사, 바이
어발굴, 현지마케팅 등 시장개척 교두보 역할
을 수행할 파일럿 요원을 파견했다.

다변화 선도기업 100개사 육성 및 청년 해
외개척단(AFLO) 파견 사업도 진행했다.

선도기업 육성의 경우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
어 알선, 브랜드 컨설팅, 제품개발 등 신시
장 개척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패키지로 집



지난 5월 개최된 '2018 시알 차이나(Sial China, 상하이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모습(왼쪽부터 시계방향). 지난 3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전문 박람회 'Foodex Japan 2018' 한국관에 참가한 aT. 지난 9월 브라질에서 열린 '2018 한류 엑스포' 모습. /aT



이병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연합뉴스

중 지원해 올해 8월 기준 선도기업 전략국가
신규수출 64건(83만6000 달러)을 달성했다.

다음으로 aT는 농어가소득 제고를 위한 신
선농수산물 및 국산원료 가공품 수출 확대에
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자 중심의 선도조직을 생산자 주도형
통합조직으로 전환해 마케팅 보드화 및 수출
창구 단일화를 유도했고, 신선농산물 및 국산
원료 사용 가공식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3개국 18개소에
한국 신선농산물 전용 판매점 'K-Fresh Zo
ne'를 운영하고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비
중이 높은 김치, 유자, 인삼 등에 대한 수출품
목 지원도 확대했다.

특히, aT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은 시장 특성에 맞는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한 것이다.

우선 동남아의 경우 국가별 집중 마케팅을
통해 동남아를 제2의 주력시장으로 육성한다
는 방침을 세웠다.

베트남은 인삼·배·포도, 태국은 포도, 오미
자, 인도네시아는 배, 음료 등 국가별 전략 품
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집중 마
케팅을 진행하고 수출 걸림돌인 열악한 물류
인프라 극복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에 나섰
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 호감 향상 마케팅
으로 신 한류 붐 조성에 중점을 뒀다. 온라인
마케팅, 소비자체험행사 등으로 호감도 및 구
매의욕을 고취시키고 지난 달 'Hot&Red 테
마 푸드트럭' 체험 홍보로 HMR(가정간편식)
시장을 개척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상품 집중 지

원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영유아식품(이유식, 유아용곡수) 등 유망
상품 발굴 및 시장 정착을 지원하고 중국 파
워블로거인 '왕홍'을 활용한 홍보로 한국농식
품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에는 새로운 유통채널
발굴 및 다민족 마켓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
고 있다.

이와 관련, aT는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8개국에서 126개 업체, 150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350여개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와 1:1 매칭 상담을 진행하는 '하반
기 농산업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aT 이병호 사장은 "2018 하반기 농산업 대
규모 수출상담회(BKF)는 국내 농식품 수출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신규 바이어 발굴
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큰 행사로, 수출업
체·바이어 모두가 만족하며 큰 성공을 거뒀
다"며 "앞으로도 aT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는
물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획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다양한 바이어 초청 사업을 지속
추진해 중소수출업체의 신규 판로 지원에 앞
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경.

농수산물 수출, 농어업인 소득향상 '구슬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1967년 12월 농
공간 격차 완화를 위해 설립된 농어촌개발공
사로 시작돼 1986년 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
를 거쳐 2012년 1월 현재의 한국농수산물유통
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2014년 9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본
사를 이전했으며 2017년 1월에는 수급본부
를 설치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신경영비전을 선포하고 농수
산식품 수출과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다
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사의 임무는 공사법 제1조에 명시된 농
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

는 크게 ▲수급안정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수급안정의 경우 정부 지정 농산물 수매·
수입 및 비축·판매 전담관리 등의 사업을 진
행하고, 유통개선과 관련해서는 직거래 활성
화, 산지조직·도매시장 평가·지원, 유통정
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진흥 업무와 관련해선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개척,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식품산업육성과 관련
해선 식품·외식업체지원, 인프라구축, 전통
식품 육성 등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
다. /세종=최신용 기자

'청년 파견' 해외개척, 수출 다변화 성과

올 11개국에 '아프로' 100명 파견 목표
남아공-김스넥, 베트남-떡볶이 수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수출시
장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해외
개척단(AFLO) 사업이 현장에서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다.

12월 aT에 따르면 청년 해외개척단 AFL
O(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
on)는 농식품 개척 청년리더 조직으로 글로
벌 역량과 열정을 가진 청년을 시장다변화
대상 국가에 파견해 수출업체의 현지 주재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신시장 개척 프로그
램이다. 우리 농식품 수출의 신규 시장을 청
년이 앞에서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7년 발족해 1-2기 60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는 11개국 100명 파
견을 목표로 이달까지 60명을 해외에 파견
했다.

aT에 따르면 지난해에 AFLO와 함께 시
장다변화사업에 참여한 40개사가 신규 시장
런칭에 성공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
어 올 상반기의 경우 국가에 따라 최대 13:1
의 높은 모집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본인이 직접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
고, 사후 본인의 직업을 찾는 데도 직·간접적



지난 3월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
T 청년 해외개척단 3-4기 합동 발대식 모습. /aT

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청년개척단 지원
열기의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으로 aT는 분
석하고 있다.

올해 또한 아프리카에 참여한 청년들은 다양
한 성과를 냈다.

청년개척단 4기에 참여해 남아프리카공화
국으로 파견된 김가형씨는 남아공 시장분석
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소비트렌드인 다이
아트 및 웰빙 식품과 접목해 김스넥 및 김밥
용김에 대한 신규 진출에 성공했다.

베트남으로 파견된 장철환씨도 매칭기업
의 잠재적 바이어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음
식인 떡볶이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적극적
으로 진행해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병호 aT 사장은 "aT는 우리 농식품 수
출시장 다변화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아프리카 청년들의 파견활동 종료 후
에도 수출기업과 청년들 간의 지속적인 채용
기회를 마련하는 등 후속관리에도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